####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파트 건설현장 15년된 정자 보존 갈등

# "주민이 수백년 가꿔" vs "발목잡기 안돼"

쌍촌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측-마을향우회 마찰 부지 매각 협의 1년째 제자리 내년 말 완공 차질 우려

■ 쌍촌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정자 위치도



광주시 서구 쌍촌동 267번지에 들어설 쌍촌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둘러 싸고 아파트에 입주할 조합 측과 이 마을 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향우회원 간 갈등 이 심화하고 있다.

사업부지 내 시유지에 설치된 정자와 비석을 둘러싸고 쌍촌마을향우회원들은 "정자와 비석 부지는 빼고 아파트를 지으 라"고 요구하고, 조합 측은 "비석은 제자 리에 놓아두고 정자는 새로 지어준다는데 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맞서

광주예술고 이설 사업이 정부 투자심사

를 거쳐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여수지

역 숙원사업이던 거문도 내 2개 초교와 3

개 분교를 2019년까지 거문초교(가칭)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현실화될 지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무려 네 번째 심사 대상에 오

른 함평골프고 인근 '교육용 골프실습장'

10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3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

텔에서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

위)를 열고 광주교육청의 광주예술고 이

전과 효천 1초교(가칭) 신설 사업의 승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

잉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ㆍ

도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 등

신설계획의 마지막 검증 절차로, 중투위

승인을 받아야 교부금이 나온다. 예술고

이전 사업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830억

도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여부를 심사한다.

광주예고 이전·거문초교 통폐합 관심

교육부 13·14일 광주·전남 교육 현안 투자심사위 진행

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쌍촌동 267-1번지 일원에는 267세대 규모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 다. 사업부지 전체 면적은 1만8449㎡. 조 합 측은 시유지 549㎡를 제외한 토지를 매 입한 뒤 지난해 6월 서구청으로부터 공동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나섰 다.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던 아파트는 사업부지 내 시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애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 광주시는 "시유지 안에 있는 정 자와 비석을 세우고 이용해 온 주민들과 협의를 마쳐야 부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조합 측에 내걸었는데, 1년 이상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문제의 땅은 시청 소유고, 정자도 서구청이 2003년에 새로 지어준 것"이라며 "향우회원들에게 '비석은 그대 로 놓아두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7000만원 을 내놓겠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또 "공 사 착공 전 주민자치회 측에 5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놨는데도, 비석을 세우고 정자를 가꿔온 향우회원들이 명확한 입장 을 내놓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막 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을 들여 광주시 북구 매곡동 옛 전남교육

청 부지(토지 3만6938㎡)에 예술고를 옮겨

효천 1초교 신설사업은 2019년 3월 개교

를 목표로 광주시 남구 임암동 483번지 일

대 효천 1도시개발사업지구에 36학급 규

모로 초등학교(1만2214m<sup>2</sup>·사업비 212억)

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교육청은 효천 1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서는 공동주택에

441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803명의 학생

유발효과가 발생,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히

교육부는 또 14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의뢰한 ▲혁신도시 내 매

성중·고등학교 신설 ▲순천 삼산중 이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내 '가칭' 행복초·

중학교 신설 ▲여수 거문도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함평골프고 인근 교육용 골

프실습장(18홀)설치 사업에 대한 심사를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짓겠다는 구상이다.

다는 입장이다.

진행한다.

쌍촌마을향우회측은 이와 관련 "쌍유 정(정자)은 지난 300년동안 우리 조상들 이 세우고 가꿔온 것을 서구청이 15년 전 주민 복지 차원에서 신축해준 것으로 그 소유권이 서구에 있다는 것은 온당치 않 다"면서 "향우회원들은 정자·비석 부지 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지으라는 게 중론 이지만, 조합 측과 협의는 계속 이어가겠 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조합 측은 비석은 존치 하고 정자는 새로 건립해주겠다는 입장이 나 '수백년간 가꿔온 정자를 더는 이용하 지 못하게 됐다'는 마을 향우회원들 주장 도 일리가 있다"면서 "아파트 완공을 기 다리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면 조합 측과 쌍촌마을향우회 측이 허심 탄회하게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봄기운이 완연한 10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 봄 햇살과 데이트 외정원인 '하늘마당'에 봄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햇살을 받 으며 얘기꽃을 피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19:02 06:13 강풍 조심하세요 춘천 강릉 (A) 오전까지 비온 뒤 개겠다. 예상 강우량 10~40mm. 인천 **△** $\bigcirc$ 독도 <mark>광 주</mark> 비온뒤갬│10/18 <mark>보 성</mark> 비온뒤갬│10/18 대전 목 포 비온뒤갬 **\$** 대구 11/18 영 부산 광주 강 진 비온뒤갬 | 11/18 남 원 비온뒤갬 | 10/16 해 남 비온뒤갬 | 9/16 흑산도 비온뒤갬 | 7/13 제주 장 성 비온뒤갬 10/17 <u>♦ 바다 날씨</u> 경고 먼바다 앞바다 북~북동 1.0~2.0 북서~북 0.5 먼바다(동) 북~북동 2.0~3.0 북서~북 1.0 식중독 <u>먼바다(서)</u> 북~북동 2.0~4.0 북서~북 1.5~2.5 보통 자외선 만조 07:33 02:20 목포 19:49 14:37 낮음 03:06 09:19 여수 피부질환 15:16 21:41 <u>♦ 주간 날씨</u>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2(수) 12/18 5/21 8/21 11/21 10/24 10/20

06:06

19:02

## 다시 새기는 전두환 · 노태우 판결 의미

### 5·18 재단 20주년 학술대회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을 맞아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학술대 회가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 의당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국회에서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 술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5·18재단은 학술대회는 군사반란과 시민학살을 통해 집권한 두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의 법적·역사적·정치사회적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 했다. 현시대에서의 민주주의, 역사적 정의(正義), 정치적 사면, 과거 청산 등 다양한 주제도 5·18민중항쟁, 전두환·

노태우 사법처리와 연관지어 고민하는 시간도 갖는다.

기조별표는 안병욱 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두 환·노태우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의 와 한계'를 주제로 한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 2, 3심에서 의 주요 쟁점과 대법원 판결 요지'를, 김 재윤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 치적 사면과 사법정의를, 곽노현 전 서 울특별시교육감은 전두환·노태우 판결 이후 20년 한국민주주의 전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학술대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 지 진행된다. /김형호기자 khh@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출근 거부 중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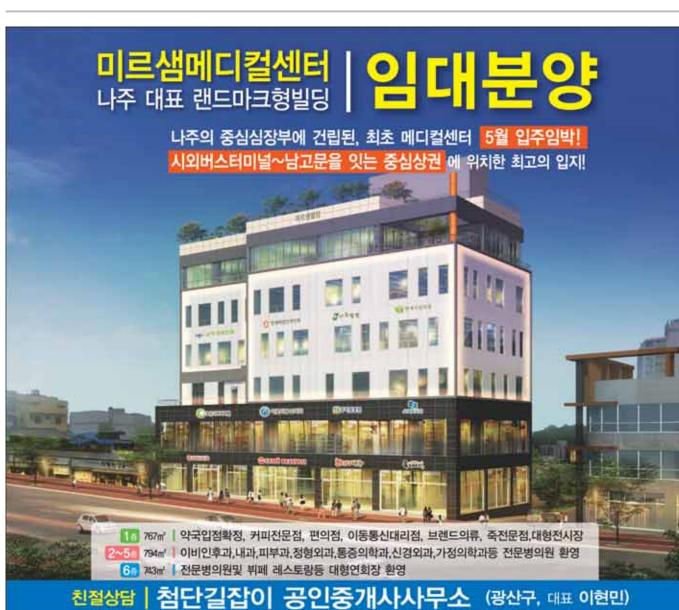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전임 근무를 잇따라 허용하고 있 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권취소, 전 임 근무자 중징계 등 엄중 대처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 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28일까지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총 16명이다.

16명 가운데 노조 전임 근무를 교육청 으로부터 허가받은 교사가 6명(강원 1 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연가 를 내고 전임 근무를 하는 교사가 3명 (대전·울산·인천 각 1명), 직위해제자 4 명(경기 3명, 제주 1명)이며 나머지 3명 은 무단 결근(인천 1명, 전남 2명)을 하 고 노조 전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



062-972-8845 - 010-3635-5800

